

광주·전남 고령자 생활 만족도 낮고 삶 팍팍

호남통계청 '고령자 통계'...올 65세 이상 인구 57만7000명 대부분 소득 없어 은퇴 후 일자리 찾아...홀로사는 노인 늘어

고령화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오래 살게됐는데 노후 생계가 막막해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가 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노인들의 얼굴에서 웃음도 사라졌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7일 내놓은 '광주·전남 고령자 통계'는 지역 노인들의 현 주소를 엿볼 수 있는 통계다.

올해 광주·전남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7000명. 광주는 18만5000명으로 전체의 12.3%, 전남 노인 수는 39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21.8%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전국에서 가

장 높고 매년 증가 추세다.

오래 살게됐으니 생활비도 더 필요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들이 많다. 광주에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19.2%(1만2000명)에 이르고 전남은 2만3000명으로 전체의 31.6%나 된다.

노후 생계가 막막하다 보니 광주·전남 노인들은 은퇴 뒤에도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

광주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난해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은 31.3%. 경제활동인구 참가율은 27.7%(2014년)→28.2%

(2015년)→30.3%(2016년)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년 뒤 다시 '돈벌이'를 찾아 나선 고령층 취업자도 늘고 있다. 고령층 고용률은 23.3%(2010년)에서 26.8%(2014년)로 4년간 3.5%포인트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30.6%로 뛰면서 3년 만에 3.8%포인트 급증했다.

그나마 은퇴 뒤 '인생 2막'을 연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들의 사업소득도 크게 줄었다. 올 3분기 60세 이상 가구주의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70만9000원)보다 10만8000원(15.3%)이나 줄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이 10만원 넘게 감소한 것은 통계청의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60세 이상 가구주에는 은퇴 뒤 '창업' 등

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세대가 적지 않다. 은퇴 뒤 커피전문점, 치킨집,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낮은 창업에 뛰어 들었다가 경기 침체와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사업 소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팍팍한 삶 때문에 소비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지 않다.

홀로 사는 노인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광주는 고령자 중 1인 가구가 34.3%(3만6000가구)에 이르고 전남은 10만1000가구(41.1%)나 된다. 자연히 그들은 지켜보는 사람 없이 외롭게 죽을 가능성도 높다.

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베풀어 줄 것으로 내몰리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체계적 복지 대책을 한층 촘촘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99.42 (+16.40)	↓ 금리 (국고채 3년) 1.91 (-0.01)
↑ 코스닥 700.67 (+5.31)	↑ 환율 (USD) 1129.40 (+0.50)



쌍용건설이 분양하는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 견본주택을 찾는 방문객들.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 분양

전 가구 남향 배치 채광 극대화 주말 방문객 1만7000명 달해

쌍용건설이 '광산 쌍용예가 플래티넘(Platinum)'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갔다.

쌍용예가 플래티넘은 광주시 우산동 1343-6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14-17층 규모(13개동 764가구)로 지어지며 조합원들에게 공급되는 592가구를 제외한 172(76㎡ 55-84㎡ 11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모든 가구를 남향 위주로 배치, 채광 효과를 극대화했고 84㎡의 경우 4베이, 76㎡ 타입은 3.5베이로 설계했다.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제공되며 필로티 구조의 판상형 2층에 테라스와 탐상형 1층 기구별 개인 정원 등 설계를 차별화했다.

상무·수완지구, 하남산업단지, 광주

송정역, 유스퀘어 등으로 이동이 용이하고 무진대로와 제 2순환로, 무안광주고속도로 진입도 쉬운 편리한 교통 여건을 갖춘데다, 인근에 초·중학교와 이마트, 롯데시네마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해 견본주택을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회사측 설명이다. 회사측은 견본주택을 오픈한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찾은 방문객만 1만 7000여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이달 말 예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앞두고 유주택자들이 청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방문과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청약은 2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9일 1순위, 30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12월 6일 당첨자 발표 뒤 17-19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오는 2020년 12월에 입주할 예정이다. 문의(062-361-7070).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기업 12월 경기전망치 88.7 22개월만에 최저 수준

기업들의 12월 경기전망치가 22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600대(매출액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12월 전망치는 88.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한경연은 11월 실적치는 전망치(90.4)보다 낮아 88.7로 조사돼 2015년 5월부터 43개월 연속 100선 아래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12월 경기 비관론은 제조업 부진 영향으로 분석됐다. 12월 제조업과 중화학공업 전망치는 각각 82.1, 79.2로 3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경연은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 중화학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침체도 경기전망 악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삭스 앵글부츠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MAP매장에서 고객이 삭스 앵글부츠를 살펴 보고 있다. 삭스 앵글부츠는 양말을 신은 것처럼 발목이 얇아 보여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광주점은 2층 구두매장에서 오는 12월 2일까지 부츠페어를 열고 최대 30% 할인을 진행한다. <롯데쇼핑 제공>

현대차 제네시스 최상위 세단 'G90' 출시

현대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의 최상위 세단 'G90' (사진)이 첫 선을 보였다.

현대차는 27일 'EQ900'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인 G90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지난 2015년 국내서 선보인 브랜드 첫 플래그십(대표) 세단 EQ900을 북미와 중동 등 주요 고급차 시장에 내놓은 G90이란 이름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이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오각형 모양에 격자 형태로 바뀌었고 4개의 램프로 이

뤄진 퀴드램플 헤드라이트로 달았다.

G90은 국산차 최초로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탑재하고 내비게이션과 연계해 터널 진입 때 창문과 공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 공기가 나쁜 지역을 지날 때 자동으로 내기로 전환해주는 장치 등도 갖췄다.

판매가격은 ▲ 3.8 가솔린 7706만원 ▲ 3.3 터보 가솔린 8099만원 ▲ 5.0 가솔린은 1억1878만원부터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장철 광주·전남 채소류 가격 안정세

배추 2주전보다 14% 내려 양파·간마늘·대파도 하락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를 비롯한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

2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발표한 광주·전남 농산물 소식지 '얼마요' 1819호에 따르면 최근 광주 양동시장 가을배추 1포기 소매가는 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와 같은 가격으로 2주 전 3500원보다는 14.29% 하락한 것이다.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작황이 좋아 출하 지역 역시 확산, 공급량이 늘면서 전반적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aT

의 분석이다.

무 가격도 현재 1개당 1500원으로 전년 가격과 같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오이(취정)는 10개당 5000원으로 2주 전보다 16.67% 내렸고, 대파 10.71% 하락한 2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양파와 간마늘은 최근 가격 변동은 없는 상태로, 전년에 비해서는 각각 30.33%와 12.50%씩 저렴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생강은 작황부진과 김장철 수요 등이 겹치면서 2주 전보다 1kg당 가격이 1만4000원으로 17%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과일류는 최근 감귤과 단감 등 제철 과일이 출하돼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림세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지붕위의 막걸리

매주 수요일 밤 11시

CHANNEL